

사건기자의 단상

어머니들의 열정, 금메달감입니다



지난주 여수와 전남 일원은 전국체전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의 여운이 그대로 전국체전에도 이어지면서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스포츠 대잔치가 펼쳐졌습니다.

어떤 선수는 혹독한 훈련을 견뎌낸 굵은 땀방울의 대가로 빛나는 메달을 목에 걸기도 했고, 또 어떤 선수는 고개를 숙이며 다음해를 기약하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경기장 밖에서도 환희와 눈물이 교차하는 장의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랑스러운 아들, 딸 소중한 친구의 경기장을 찾아 열정적인 응원을 펼쳤습니다.

16일 전남실내체육관에서 만난 학부모들도 누구 못지 않은 열정을 과시했습니다. 이들은 '금빛 왕크'의 주인공 이음태 선수의 후배들이던 화순실고 배드민턴부 학생들의 경기에 출동한 응원부대입니다.

남자 복식 결승이 펼쳐진 이날, 작은 서름룩이 활재없이 경기장을 오가며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이어졌습니다. 서름룩의 움직임에 따라 응원석 학부모들의 몸짓도 들쭉날쭉, 손에 낀 응원도구에서 경쾌한 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하고 때론 아쉬운 탄성도 흘러 나왔습니다.

1시간 넘게 진행된 경기 내내 어머니들의 응원은 멈출 줄 모릅니다. 코트로 달려나가 몇 시간이고 대신 뛰어주고 싶은 게 어머니의 마음 일터인데 이 정도의 수고도 대수이겠습니까?

목이 새도록 환호성을 지르며 지원 사격에 나섰던 어머니들. 활기찬 모습으로 소녀 같은 열정을 과시하던 어머니들은 결국 시상대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아들의 모습에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결과야 어찌 됐든 최고를 위해 최선을 다했던 선수 모두에게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리빙 센스

눈에 관련된 응급처치 ①



◆눈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쉽게 구할 수 있는 생리 식염수로 눈을 가볍게 씻는다. 생리 식염수가 없다면 깨끗한 물로 눈에 흘리듯 가볍게 씻는 게 좋다.

이물질이 있더라도 각막에 상처를 남길 수 있으므로 절대 눈을 비벼서는 안 된다. 혹시 이물질은 제거되었으나, 각막에 이미 상처가 생겨 이물질이 계속 남아있을 수 있다.

◆무언가에 심하게 맞았을 때

절대로 눈을 비비고 만지거나 안구를 누르지 말고 즉시 안과를 찾는다. 당시에는 별문제 없어 보여도 눈은 늦게 후유증이 생길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한다. 특히 뿌옇게 보이거나 붉게 보이는 경우, 물체가 여러 개로 보이는 경우, 안 보이는 방향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안과를 찾는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21일(음 9월 23일 甲午)

36년생 좋은 일과 연결될 기회가 생긴다. 48년생 협조자가 나오나 조심성 있게 판단하라. 60년생 길보다 흉이 더 많으니 매사에 신중하라. 72년생 재산은 증식되나 부부간의 이해가 부족되니 대화 필요하다. 84년생 욕심을 버려라. 행운의 숫자: 12, 23

37년생 도회기가 재발할 수 있다. 49년생 누런 구슬 등으로 불순한 일이 괴롭힐 수도 있다. 61년생 기상천외한 횡재수가 있다. 73년생 기회를 놓치지 마라. 85년생 인생은의 뜻을 아는 시기가 지금부터고 행운하라. 행운의 숫자: 04, 22

38년생 흥분은 금물이나 생각하고 행하라. 50년생 직장에서 새로운 일로 인정받고 가정의 평안이 있다. 62년생 예상치 못했던 실수가 있으니 주의하라. 74년생 새로운 일이 생기기 전후와 우를 살펴 가라. 행운의 숫자: 07, 26

39년생 신체적 불만이 나올 수 있고 주변이 어지럽다. 51년생 대단히 불리해질 수 있는 할 일을 미루지 마라. 63년생 다시한번 뒤를 돌아보라. 75년생 주변의 변화로 재물이 생길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06, 25

40년생 식구들의 건강을 살펴볼 때다. 52년생 직언과 돈 남편 자녀들까지도 조심해야 한다. 64년생 무리한 변화는 잘못이 따르니 신중하게 처신하라. 76년생 재물과 건강에 시달림이 있을 수 있다. 행운의 숫자: 15, 27

41년생 불연이면 송사에 휘말린다. 53년생 건강을 위한 꾸준한 계획을 세우고 행하라. 65년생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 된다. 77년생 소신껏 행동하면 화도 복으로 되돌아 온다. 행운의 숫자: 19, 28

42년생 가족과 떨어져 살 수도 있다. 54년생 나이에 불리한 일은 모두가 내 탓으로 생각하라. 66년생 배인 덕이 없다 생각 말고 자신의 노력 부족으로 생각하라. 78년생 새로운 인생을 설계 할 때다. 행운의 숫자: 09, 21

43년생 많은 지출이 발생하나 투자로 생각하라. 55년생 부모 형제의 도움이 있고 새 생활이 시작 된다. 67년생 작은 일도 꼭 성공하겠다는 각오로 추진하라. 79년생 애인과 다툼은 있으나 원인은 사소한 것. 행운의 숫자: 03, 16

44년생 슬픔과 기쁨이 같이 나타난다. 56년생 어부지기가 있지만 결과는 좋지 않다. 68년생 아랫사람과 금전거래는 절대로 하지마라. 80년생 소탐대실 욕심을 버리는 사람에게 승리의 여신은 미소 짓는다. 행운의 숫자: 02, 29

45년생 약어도 수탈에 꼬리를 내어준다. 57년생 일일일득, 하나를 잃으면 하나를 얻는다. 69년생 귀인이 만나서 도움을 받지만 무리하는 자신이 하라. 81년생 부모에게 효도도 중요하나 자식교육이 더 중요 하라. 행운의 숫자: 13, 30

46년생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있으나 원지는 없다. 58년생 상황이 따라서 시비 도난 분실은 발생할 수도 있다. 70년생 뜻하지 않은 돌발 사태에 지체롭게 대처하라. 82년생 공상에 범이 따르니 피하는 게 좋다. 행운의 숫자: 11, 24

47년생 자기자랑보다 동료를 칭찬하라. 59년생 아무리 부부사이라도 예의를 지키면 사랑은 두 배로 되리라. 71년생 제일 관련 사람이 제일 소중한 사람이다. 83년생 이성의 만남도 좋은 계획을 세워서 하라. 행운의 숫자: 17, 18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Advertisement for DermaPlast featuring a woman's face and text: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 더마플라스트 밴드. 제품구입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

오늘의 유머

지배인의 착각

어떤 청년이 슈퍼마켓에 취직해서 첫 출근을 하게 됐다.

지배인이 따뜻한 표정으로 그를 맞이하더니 빗자루를 쥐어주면서 말했다.

“자네의 첫번째 일거리는 가계를 청소하는 거네.”

그러자 청년이 화를 내면서 대꾸했다.

“하지만 전 대학 출신이라고요!”

그 얘기를 들은 지배인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 미안하게 됐네. 내가 그걸 몰랐네.”

그렇게 말하고는 지배인이 한마디 덧붙였다.

“빗자루를 이리 주게. 내가 빗질하는 법을 가르쳐 줄테니까.”

돈 버는 글

글을 잘 쓰기로 소문난 작가가 어떤 사람에게 질문을 받았다.

“가장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글은 뭘입니까?”

그러자 작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합박장입니다.”

구인광고와 개

개 한 마리가 길을 가다가 사무실 유리창에 붙어있는 구인광고를 보았다.

“보조원 구함. 자격 요건: 타자를 1분에 70단어 치고, 컴퓨터를 쓸 줄 알고, 2개 국어를 할 수 있는 자. -기회 균등 고용주-”

이 광고를 본 개가 보조원 자리에 응모했지만 퇴짜를 맞았다.

“개를 채용할 수는 없네.”

사무실 주인의 말에 개가 ‘기회 균등 고용주’라는 문구를 가리켰다.

주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타자는 칠 줄 알아?”

개는 능숙능란하게 타자를 치며 컴퓨터를 조작했다.

이를 본 사무실 주인이 짜증을 내며 말했다.

“이봐 그래도 개를 고용할 순 없어! 너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2개 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해. 광고에도 그렇게 적혀있잖아!”

그러자 개가 사무실 주인을 올려다보면서 말했다.

“아웅~”

“이봐 그래도 개를 고용할 순 없어! 너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2개 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해. 광고에도 그렇게 적혀있잖아!”

그러자 개가 사무실 주인을 올려다보면서 말했다.

“아웅~”

“이봐 그래도 개를 고용할 순 없어! 너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2개 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해. 광고에도 그렇게 적혀있잖아!”

그러자 개가 사무실 주인을 올려다보면서 말했다.

“아웅~”

“이봐 그래도 개를 고용할 순 없어! 너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2개 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해. 광고에도 그렇게 적혀있잖아!”

그러자 개가 사무실 주인을 올려다보면서 말했다.

“아웅~”

“이봐 그래도 개를 고용할 순 없어! 너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2개 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해. 광고에도 그렇게 적혀있잖아!”

그러자 개가 사무실 주인을 올려다보면서 말했다.

“아웅~”

“이봐 그래도 개를 고용할 순 없어! 너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2개 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해. 광고에도 그렇게 적혀있잖아!”

그러자 개가 사무실 주인을 올려다보면서 말했다.

“아웅~”

“이봐 그래도 개를 고용할 순 없어! 너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2개 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해. 광고에도 그렇게 적혀있잖아!”

그러자 개가 사무실 주인을 올려다보면서 말했다.

“아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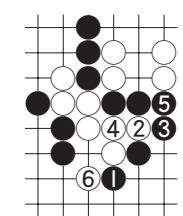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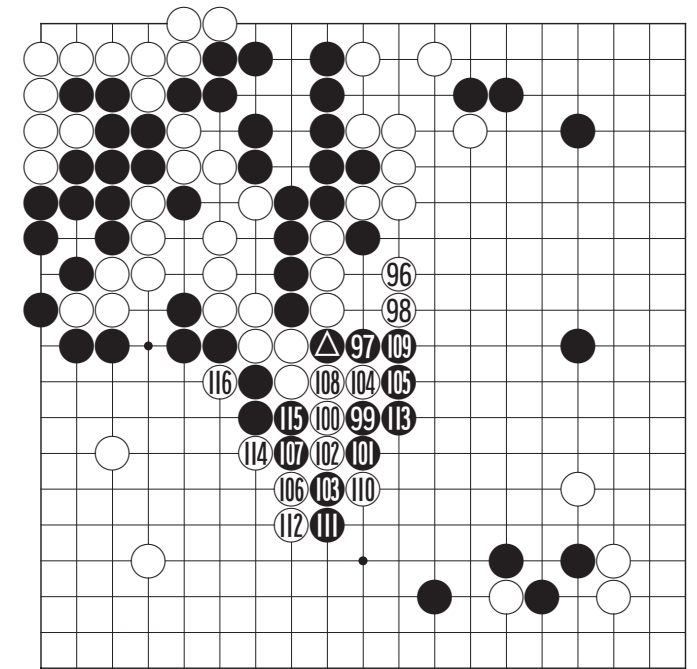
“이봐 그래도 개를 고용할 순 없어! 너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2개 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해. 광고에도 그렇게 적혀있잖아!”

교묘한 탈출구

중고등부 결승전 6보(96~116)

白 권재구 4단 黑 김영환 4단

(문성중 3) (금구중 1)



(참고도)

백 대마가 영락없이 갇힌 형국인데도 권재구군은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대뜸 100으로 붙어 간다. 이미 탈출구를 봐 두었다는 듯한 태도다.

흑 ▲가 강력한 절단으로 김영환군이 노리고 노리던 승부수였다. 죽이 안 되니 백은 96으로 지킬 수밖에 없고 흑 97을 선수한 다음 99로 모양도 좋게 씌워오니 백 대마가 그물에 단단히 걸린 형상이다.

김영환군이 오히려 장고에 빠져든다. 생각 같아서는 당장 ‘참고도’의 흑 1로 틀어막고 싶으나 그러면 백이 2로 끼워오는 수가 눈에 들어 온다. 흑은 3으로 단수칠 수밖에 없는데 4 다음 6으로 짓혀나오면 쉽게 탈출하고 마는 것이다.

결국 101로 후퇴했으나 역시 104로 끼우는 수가 있다. 김영환군은 내친결음으로 107에 끊어 약착같이 버텼으나 사방에 약점이 있어 거꾸로 백의 공세에 시달리게 되었다. 116으로 끊겨 수습이 곤란해 보이는데.

<오규철 9단·본보 바둑 해설위원>

Logos for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and 'EL DORADO 엘도라도리조트'

A grid of language learning materials including English, Korean, and Chinese lessons with dialogues and exercises.